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방향

정상희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제안 배경	1
2	혁신형 창업 환경 분석	3
	(1) 기업가 정신	
	(2)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3	혁신형 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	7
	(1)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3)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조성	

• 요약 •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벤처창업으로 대표되는 혁신형 창업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형 창업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창업은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체계적인 창업 지원정책을 통해 창업에 대한 성공률 제고 등 사회적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혁신형 창업환경을 크게 기업가 정신,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가를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의 창업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기업가 정신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수한 인재의 창업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조성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창업환경은 융자 및 보증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혁신형 창업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창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연구개발 성과의 유지·관리 지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창업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속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방향

정 상 희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 제안 배경

- 혁신형 창업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 수행
- 지난 대선에서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형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혁신형 창업이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국내 혁신(벤처)기업의 평균적인 미래가치는 170억원 정도에 달하는 반면 생계형 창업의 미래가치는 -1,000만원 수준이며, 생존율 측면에서도 국내 벤처기업의 10년 생존율은 64.1%인데 반해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은 24.6%로 큰 차이를 보임¹⁾
 - 혁신형 창업의 효과를 바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들 수 있는데, 2016년 기준 100대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애플과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1,780억 달러, 1,330억 달러인 반면 7위를 차지한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510억 달러로 애플의 1/3 수준임
 - 이와 함께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Mckinsey에 의하면 2025년 12대 와해성 기술²⁾을 통해 14~33조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은 혁신형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

1) 이민화, 창업활성화, 민주연구원 창업활성화 간담회 자료, 2015.

2) Mckinsey는 각종 학술저널, 경제 및 기술전문 미디어, 벤처 캐피털, 관련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바일 인터넷, 지식노동의 자동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첨단로봇 기술, 무인자동차 및 수송장치, 차세대 유전체학, 에너지 저장장치, 3D 프린팅, 첨단재료, 첨단석유/가스 탐사 및 채굴기술, 재생가능에너지를 선정

- 혁신형 창업은 일자리 창출에서도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진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경우 4%의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60%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국도 마찬가지로 6%의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54%를 창출하는 등 고용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벤처기업의 역할이 크게 나타남³⁾
 - 이와 함께 2001~2011년 동안 OECD 지역에서 비금융기업 전체 고용의 20%이하를 설립 5년 미만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신규 일자리의 50% 정도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2016 OECD 한국보고서)
 - 국내에서도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매년 창업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진 해당 기업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형 창업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혁신형 창업은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 주요 창업 선진국들은 혁신형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쉽게 설명한다면 창업지원에 100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할 때 선진국의 경우 창업팀 선발 과정에 30의 예산을 사용할 만큼 창업팀 선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선발 과정에 10 정도만 사용함으로써 선발 과정에 기울이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 주요 창업 선진국들의 정부 지원 창업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창업팀의 성공률은 50%가 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창업 기업 성공률은 5%도 되지 않은 상황임
 -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생존율 또한 주요 창업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창업 5년차의 생존율은 31% 정도 되는 반면, 미국 47%, 이스라엘 42%, 핀란드 41%, 스웨덴 63%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3) 이민화, 창업활성화, 민주연구원 창업활성화 간담회 자료, 2015.

- 혁신형 창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즉, 스타트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창업 성공률 및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혁신형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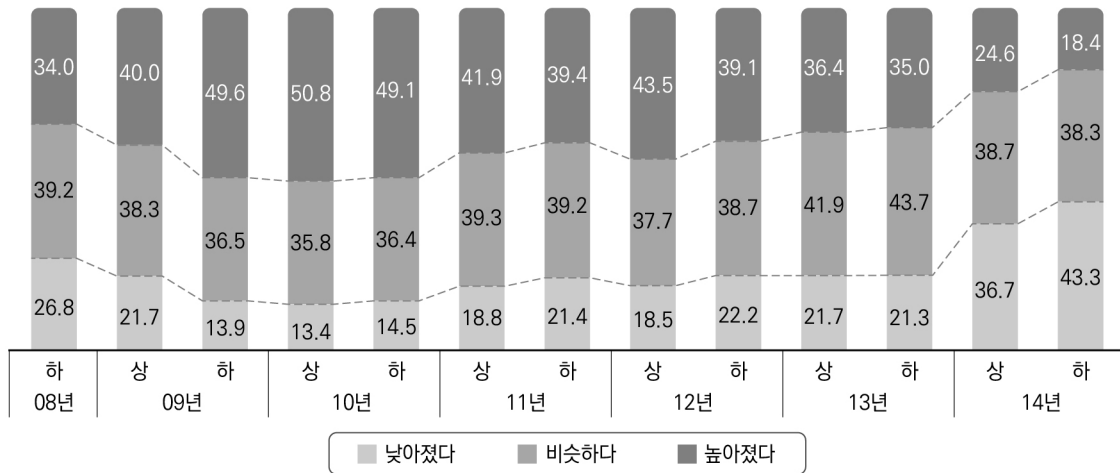
2. 혁신형 창업 환경 분석

(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정신의 지속적인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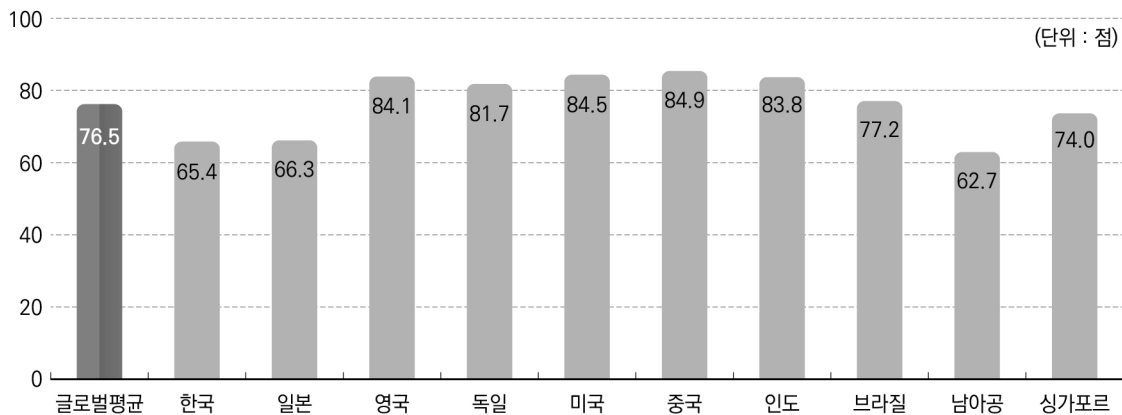
- 국내 창업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반대로 혁신형 창업의 핵심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2008년 126위에서 2016년 11위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창업환경 개선과 별개로 창업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기업가 정신과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기업가 정신이 높아졌다는 비중은 34%에서 2014년 하반기 18.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지수는 65.4점으로 주요 창업 선진국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균인 76.5점과도 큰 차이가 존재함(그림 2 참조)

(그림 1) 기업가 정신 변화추이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15), 2014 하반기 기업호감지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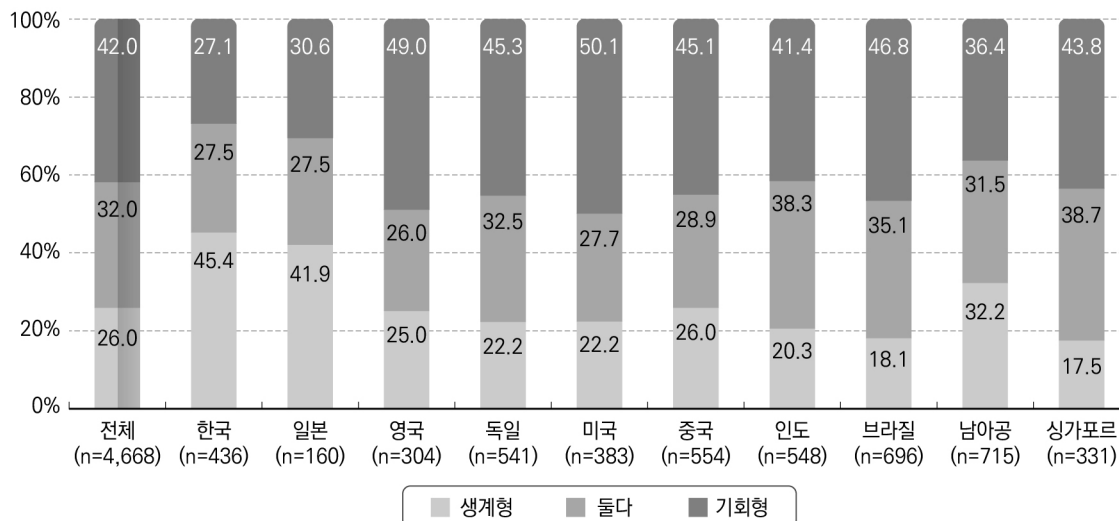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기업가정신 생태계 지수(2015)



자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5), 글로벌 기업가정신 리포트

- 창업환경과 기업가 정신과의 괴리는 혁신형 창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업자 가운데 45.4%가 생계형 창업이 주된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비중은 글로벌 평균(26.0%)에 훨씬 웃돌고 있음(그림 3 참조)
 - 결과적으로 국내 창업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창업하려는 의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실제 창업에 대한 동기도 생계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 국가별 창업동기 유형 비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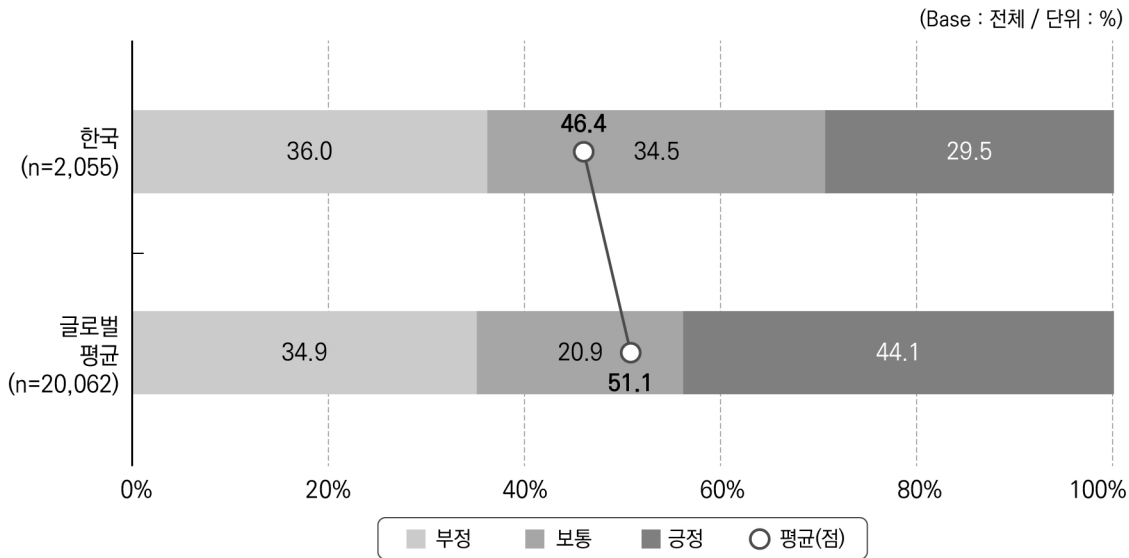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5), 글로벌 기업가정신 리포트

(2)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실패에 대한 무관용적인 사회시스템이 혁신형 창업 저해

- 혁신형 창업은 실패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창업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선진국에 비해 창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창업에 성공할 때까지 평균 2.7회 정도의 사업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창업실패가 이후 창업 성공을 위한 경험 및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국내에서는 사업실패가 인생의 패배자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존재함에 따라 혁신형 창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그림 4]의 창업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의향에 대한 긍정적인 비중은 29.5%로 글로벌 평균(44.1%)와 큰 차이를 보임
 - 즉, 창업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공무원 등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그림 4) 우리나라의 창업 의향(2015)



자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5), 글로벌 기업가정신 리포트

(3)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은 혁신형 창업활성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

○ 국내 창업환경은 투자보다는 여전히 융자 및 보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 신규자금 조달 규모는 평균 3.5억원 정도인데, 해당 자금의 조달 경로는 정부 정책지원금(36.9%)과 은행 등 일반금융(23.3%)의 비중이 60% 정도로 나타남
- 반면 벤처 캐피탈 및 엔젤투자는 0.1%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함

○ 혁신형 창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조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혁신형 창업에서 자금조달 방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기업가 정신 고취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중심의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기업가 정신 고취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융자 및 보증 중심의 국내 창업환경은 사업 실패가 개인 파산 및 연대보증인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구조로 인해 창업·재창업 유인을 감소시킴에 따라 기업가 정신 고취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용불량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대학생은 10.5%로 나타났지만 신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진다면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대학생은 69.4%로 조사됨
- 이는 혁신형 창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 중심의 창업환경을 엔젤 및 벤처투자 등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3. 혁신형 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

(1)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혁신형 창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하여 혁신형 창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 여러 부처에서 산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혁신형 창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 혁신형 창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가능한 역할
 - 혁신형 창업과 관련한 선택과 집중 정책 마련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및 마련,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 방안 마련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 창업실패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 마련
 - 스타트업 대상 인턴쉽 확대,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유도
 - 민간투자 활성화 및 전문투자인력 확보 방안 마련

□ 연구개발 성과의 유지관리 지원

○ 기술이전 활성화 및 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

- 정부는 혁신형 창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해당 기술이 제대로 된 평가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즉,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등의 정책적 지원 역할을 수행
- 이와 함께 해당 기술에 대한 탈취 및 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국내에서 기술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해당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대신 핵심 인력 빼가기, 기술 탈취 및 편취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

○ 전문가 및 엔젤 투자자 등의 창업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Smart Investment Center 구축(일반적으로 Smart Investment Center는 원격 근무 공간을 의미)

- 전문가 및 엔젤투자자의 대부분은 기업 및 소속된 기관에서 현업에 종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 따라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많은 상황임
- 따라서 이들의 창업 및 투자활동(투자기업 발굴, 투자상담, IR진행 등) 지원을 위한 Smart Investment Center를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Smart Investment Center에서는 엔젤투자자들의 사무 및 회의 공간, 세미나 장소 등을 제공하여 투자자간 교류 활성화, 공동 투자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역할 부여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
 -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요건 가운데 납입 자본금을(현재 50 억원)을 낮추고, 투자목적과 전략에 맞게 자율적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창업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의 40%를 3년 이내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입 자본금을 낮추더라도 충분히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대기업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용사 등과의 매칭 투자 활성화
 - 대기업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M&A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창업초기 단계부터 팁스 운용사 등과 매칭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스타트업을 M&A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대기업이 창업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을 것임
 - 대표적인 팁스 운용사인 퓨처플레이는 아모레 퍼시픽과 각각 스타트업 지분 7.5%씩을 가지는 조건으로 화장품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 퓨처플레이는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고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과 관련한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됨

(2)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 혁신형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혁신형 창업 실패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계속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는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성공 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
 - 혁신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실패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창업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은 필수적임

4) 실험실 수준의 기술에서 상용화 하는 과정까지의 어려움을 일컫는 용어

- 즉, 창업 실패의 경험이 재창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환경 마련을 통해 창업 활성화 및 성공가능성을 제고 하도록 해야 함

□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필요

- 창업 실패에 따른 결과가 개인파산으로까지 연결되지 않고 기업파산으로만 국한되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여 창업·재창업 의욕 고취
 - 연대보증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아 창업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 한 기업의 퇴출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어 한계기업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함
 -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함
 -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 원칙적 폐지(13.4),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연대보증 폐지 및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실제경영자의 범위 축소(13.7), 우수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부담 면제(14.2), 비창업 기업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15.1), 신·기보는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의 실제경영자 1인(대표이상 등)의 연대보증 면제(16.1)로 점차적으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함
 - 하지만 연대보증 가운데 여전히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등 기업의 실제경영자는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창업을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필요함
-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대보증 제도 폐지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연대보증이 폐지가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약 3,000억 정도의 손실을 보는 반면에 기업 전체적으로는 70조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2.1조원(법인세: 0.7조원, 소득세: 1.4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음⁵⁾

-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대보증이 폐지가 될 경우 정부는 2.1조원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신보 및 기보에 3,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 줄 충분한 유인이 존재함
- 이와 함께 연대보증 폐지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사고증가에 따른 보증기관 재원축소 등의 문제점 등이 거론됨에 따라 도덕적 해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시스템 체계 구축 등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자금과 보증기업의 성과공유 시스템 확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이익 공유형 대출과 성과 공유형 대출 방식을 스타트업 대출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익 공유형 대출은 창업초기 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지원업체의 영업성과에 따라 영업이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연동 이자로 수취하는 대출방식으로 2011년 사업을 개시함
 - 성장 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함
 - 두 가지 대출사업은 투자와 대출을 결합한 방식으로 모두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른 이익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평가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함

(3)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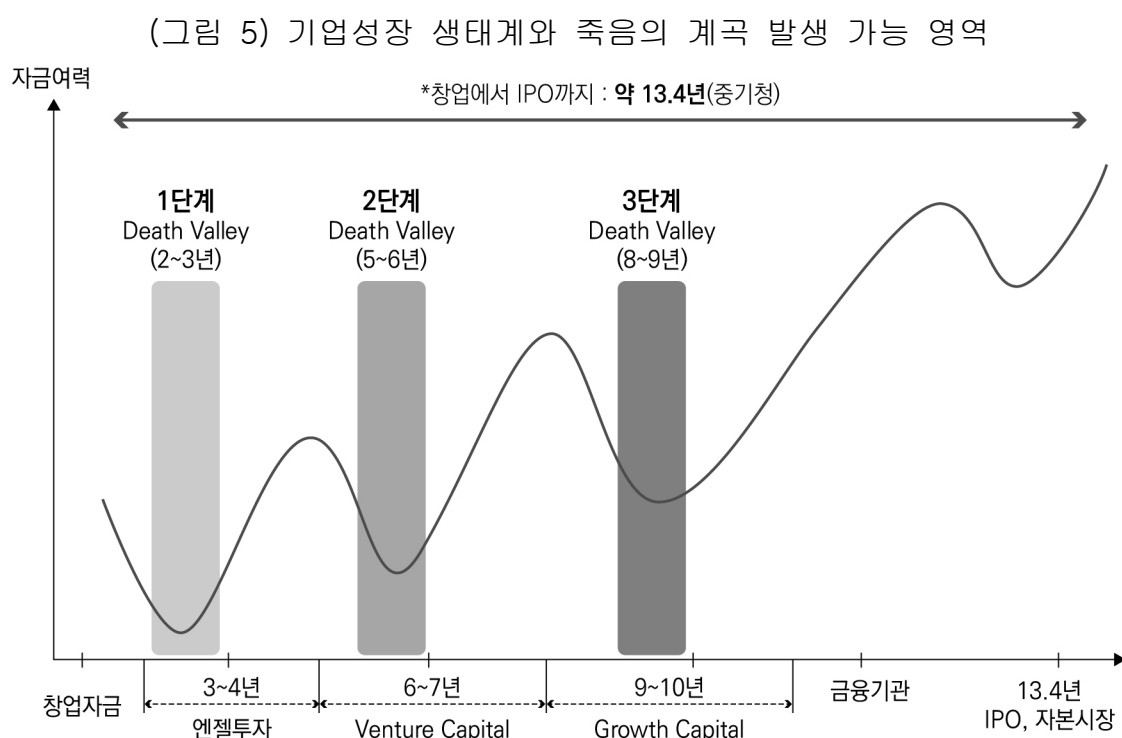
□ 민간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민간투자 중심의 원활한 창업환경 조성과 함께 창업자의 성공률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틱스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은 중소기업청이 이스라엘 T.I.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13년부터 시행한 스타트업 육성사업임

5) 해당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창조경제연구회, 2013).

- TIPS는 초기자본이 없는 기술 창업팀에게 과감한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틱스 프로그램은 시행 4년간('16.12월 기준) 30개의 운영사를 선발하여 218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으며, 민간투자 299건, 2,986억원 유치 (정부지원금의 3배), M&A 3건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틱스에 선정된 스타트업의 대표자(공동창업자 포함)를 살펴보면 석·박사 출신이 전체 54%이며, 국내외 기술대기업 출신이 30%, 교수·의사 등 전문직 출신이 8%에 이르는 등 고급 기술 인력들의 창업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킹 기능 강화 및 스타트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한 실효성 강화
-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 네트워킹 지원을 위하여 지방정부, 지방의 테크노파크, 연구개발기관, 창업보육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과의 연계 및 활성화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과 틱스 운영사가 협력하여 구축한 TIPS 타운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투자사, 창업지원 유관기관들이 함께 입주(90개사 내외, 600여명 입주)하여 규모의 경제 구축에 따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혁신형 창업의 연속성 유지
- 스타트업이 창업에서 기업공개(IPO)까지의 성장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IPO 이전 단계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 [그림 5]와 같이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3번 정도의 죽음의 계곡 구간이 존재하는데 주로 엔젤투자, 벤처캐피털 그리고 사모펀드 순으로 자금 투자역할을 담당함
 - 특히, 세 번째 죽음의 계곡단계는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로 해당 기업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IPO까지도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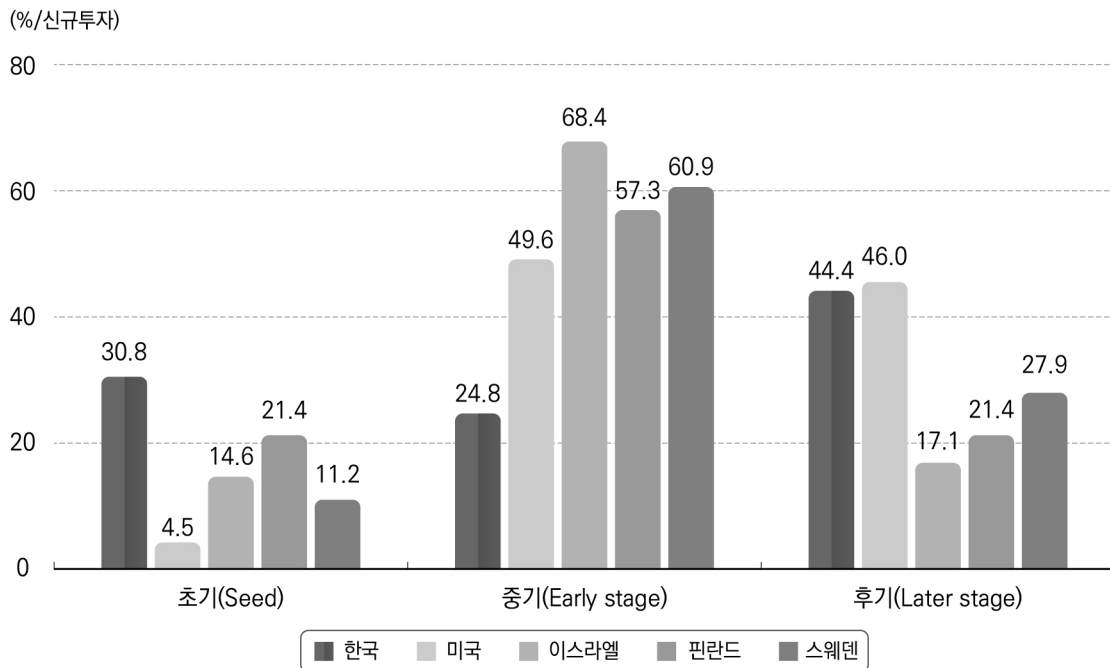
- 문제가 되는 시점은 1단계와 2단계 죽음의 계곡 단계로 이 시기에 투자되는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의 경우 6~7년의 자금운용 스케줄⁶⁾로 나타나는 투자와 회수의 미스매치 문제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함
- 즉, [그림 6]처럼 해당 시기는 기업 성장단계에서 중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투자 비중은 24.8%에 불과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등 창업 선진국의 투자 비중은 50% 이상으로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임



자료 : 금융위원회(2013), 창조금융 방향과 성장사다리 활용방안.

6) 금융위원회(2013), 창조금융 방향과 성장사다리 활용방안

(그림 6) 기업성장 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



자료 : 조호정·이부형(2016) 재인용

- 혁신형 창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스타트업의 초기에 평균 1~2억원 정도의 엔젤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업화까지 필요한 자금(5~10억원)을 엔젤투자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창업의 생태계가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계곡 단계에서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대표적으로 틱스를 통한 정부지원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스타트업 들의 죽음의 계곡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방식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중간 회수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의 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스타트업이 창업에서 기업공개까지 평균 13.4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벤처투자에 대한 자금회수는 6~7년 정도 소요되고 있어 투자와 회수에 대한 불일치(miss match)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 회수시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수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즉, 회수시장은 투자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 국내에서 투자에 따른 회수수단은 주로 기업공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M&A를 비롯한 중간 회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종 회수시장인 기업공개뿐만 아니라 중간 회수시장으로 주요 벤처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M&A 시장 등도 활성화 되어야 함
 - 하지만 국내에서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도 M&A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임
 - M&A 관련 대한상공회의소(2014)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타기업이 M&A를 제의할 경우 M&A보다 자체성장을 택한다고 답변(51.7%) 하였으며, 벤처캐피탈도 투자금 회수방법으로 66.0%가 상장을 꼽은 반면 M&A는 20.0%로 나타남⁷⁾
 - 우리나라와 반대로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주요국에서 투자회수 수단으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 91.3%, 미국 85.5%이며, 중국 또한 57.1%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남⁸⁾

7)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2014.

8)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2014.

- 무엇보다도 M&A 보다 암묵적 거래 등을 통해 핵심기술이나 인력 빼가기 등의 불법 및 편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환경이 M&A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창업 성공률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M&A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M&A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M&A 지원센터에는 M&A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기업가치 평가,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등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해당 센터는 새로 설립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본래의 M&A 중개 전문기관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거래 및 M&A 중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지만, 현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정보와 인프라 지원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특히, M&A 지원센터 설립 이외에 기술탈취 및 편취, 핵심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또 하나의 중간 회수시장 역할을 하는 세컨더리 마켓의 활성화 필요
 - 세컨더리 마켓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창업기업의 구주를 인수하여 코스닥 상장 등으로 회수하는 형태로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회수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함
 - 국내에서 회수수단 대부분이 기업공개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업 공개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세컨더리 마켓의 활성화가 필요함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 활성화 및 공정성 강화
 - M&A 시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는 주로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제도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이용할 것을 대비하여 기술력 평가기관 확대 및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함
 - 2016년 상반기까지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한 32개의 기업 중 28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기업의 경우 기술력 평가가 어려워 적정 수준의 평가등급 획득이 어렵기 때문임
 -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등 업종, 글로벌 기준 등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와 함께 기술 평가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2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술평가 결과 차이가 2등급 이상 차이 나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즉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참고문헌 •

- [1] 금융위원회, “창조금융 방향과 성장사다리 활용방안”, 2013.
- [2] 대한상공회의소, “2014 하반기 기업호감지수 조사”, 2015.
- [3] 이민화, “창업활성화”, 민주연구원 창업활성화 간담회 자료, 2015.
- [4] 조호정·이부형, “벤처활성화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2016.
- [5] 창조경제연구회, “창어바 연대보증과 국가편익”, 2013.
- [6]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글로벌 기업가정신 리포트”, 2015.
- [7] OECD, “2016 OECD 한국 보고서”, 2016.